

Abstracts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and Christian Paradigm

By Joo, Man-Sung

Ex nihilo nihil fit: Nothing comes out of nothing!

Creatio ex nihilo :God created everything out of nothing!

The former is the secular idea. The latter is the Christian idea.

We are confronted with the danger of secularized science.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comes from the secular idea.

Christian academic excellence comes from the Christian idea.

When reference is made to secularization,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is often forgotten. That is the case because the great number of christians who have enjoyed a scientific education lack a clear idea of the connection between scientific thought and religion. It would be a mistake to suppose that secularization of science is nothing more than the natural result of cultural differentiation.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is a dualistic and a dialectical one; and because the scholastic motive of nature and grace desired to reconcile it with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In principle Christian perspective are all - redeeming and all-transforming, and it is this which gives rise to the idea of integrating faith with learning. I shall propose The christian world-view(Reformed)approach to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because it is the most embracing contact between christianity and

human learning. The Reformed christian world-view enables us to see all things in relationship to God as their Creator, Redeemer, and Lord.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 we must establish first of all that divine revelation has a central motive, which is the key to knowledge, because of its integral and radical character, this motive altogether excludes any dualistic conception of the world. God' s truth is revealed in the Scripture.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2 Timothy 3: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ripture and science is not dualistic but integral. The christian university does not exist only to offer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Christian university is distinctive in that the christian faith can touch the entire range of life and learning to which a liberal education exposes students.

If we confess that God is all- wise Creator of all, then he has perfect knowledge of everything we ever sought to know or do. The early church father summed this up in what has become a guidepost for christian scholars ever since - All truth is God' s truth, wherever it be found.

***Key-words**

secularization of science, Christian Paradigm , Christian cademic excellence, The Reformed, world-view, christian scholars(학문의 세속화, 기독교적 패러다임, 기독교학문의 수월성, 개혁주의, 세계관, 기독교학자)

I. 들어가는 말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Ex nihilo nihil fit)”는 이 한 마디는 세계의 기원에 대한 이원론적이며 변증법적인 희랍적 지혜의 핵심¹⁾이자 일반학문의 전제이다. 이와 같은 전제는 “무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creatio ex nihilo)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학문의 전제와는 상반되는 것이다.²⁾ 학문적 작업에 있어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적 학문과 비기독교적 학문은 일반적으로 그 학문적 전제에 차이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학문 일반에 있어 매사에 기독교적인 것과 비기독교적인 것을 구분하기는 힘들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 이유는 학문일반이 하나님의 일반은총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학문적 작업이 기능적 중립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종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면 이런 점에서 세속 학문과 기독교 학문은 구별되어야 한다.

세속 학문과 구별 되어야 할 기독교 학문의 과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기독교 학자와 기독교 대학에 있다. 기독교 대학은 이 사회에 기독교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세워진 대학이다. 대학에서의 기독교적 가치 산출은 학문적 결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학문은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도리어 세속화 되어가는 학문적 위기 앞에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가? 물론 몇 몇 선진 기독교 대학들 혹은 학계에서

1)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trans. Robert D. Knudsen(Memphis, TN: Christian Studies Center, 1979), 12.

2) 20세기 들어 현대물리학이 탄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시간, 물질, 공간은 절대적인 물리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절대 무(無)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절대 무(無)에서 무엇이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기록 당시의 성경의 주장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는 기독교 학문을 향한 몸부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와 관련 된 상당수의 저작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³⁾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의 많은 기독교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문들은 그 가치적 측면에 있어 기독교적 지향점을 분명히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 비기독교적이기도 하다. 기독교 학문은 아직 우리에게 있어 요원한 문제인 것 같아 보이고 우리는 학문의 세속화 위

3) 칼빈대학의 경우 학문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기 위한 야심 찬 노력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칼빈 기독교 학문센터'가 후원하는 연례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있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로부터 여러 주제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연구서가 출간되었는데, 그런 주제 속에는 기독교가 현재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학문적 연구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칼빈 센터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엮은 책에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학문의 참고 문헌이 매우 많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ockne McCarthy, Donald Oppewal, Walfred Peterson, and Gordon Spykman, *Society, State, and Schools*(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1); Mark Stewart Van Leeuwen, *The Sorcerer's Apprentice: A Christian Looks at the Changing Face of Psychology*(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2); William Alston, David Holwerda, Geroge Marsden, Geroge Mavrodes, Alvin Plantinga, and Nicholas Wolterstorff, *Faith and Rationality: Reason and Belief in God*(Univ. of Notre Dame Press, 1983); Peter de Vos, Calvin De Witt, Eugene Dykema, Vermon Ehlers, and Loren Wilkinson, *Earthkeeping: Christian Stewardship of Natural Resources*(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0). Revised as *Earthkeeping in the '90s*(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1); David Lyon, *Sociology and the Human Image*(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3); Roger Lundin, Anthony Thiselton, and Clarence Walhout, *The Responsibility of Hermeneutics*(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5). 더 많은 참고 문헌을 보길 원하면 조지 마스텐의 『기독교적 학문연구@현대 학문세계』, 214-216을 참고하라. 플트대학의 경우 기독교학문연구소(Studies Institute)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통하여 출판활동 및 여러 프로젝트의 입안과 개발을 도와주고 있으며 중추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있고, 포체프스트롬대학교의 경우에는 개혁주의 학문 연구소(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와 학문 연구부(Wetenskapsleer Department)가 주로 기독교 학문의 책임을 담당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수, “도르트 대학과 포체프스트롬 대학의 신학과 세계관,” 통합연구 16권(1992, 10): 92.

기 앞에 놓여 있다. 기독교 대학에서의 기독교 학문적 수월성이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기독교 학문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 학문 일반에 대한 기독교적 패러다임이 준비되지 않은데 기인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기독교적 가치 산출을 위해 학문 일반에 기독교적 패러다임을 제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상술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학문 일반 저변에 깔려 있어 세속화⁴⁾를 초래하는 몇 가지 사상적 요인들을 진단하는 일과 그 대안으로서의 기독교적 패러다임을

4) J. Macqarrie, God and Secularity, New Directions in Theology Today, Vol.Ⅲ(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7), 44-47. 논문도 Dooyeweerd의 논문 "La Secularisation de la Science," (La Revue Reformee, V, 1954)을 번역하여 출판한 저서 서문에서 세속화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자율성(autonomy)을 추구하는 과정을 뜻한다고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cf.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1. 그런가 하면 쿤(Harold B. Kuhn)은 세속화를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전혀 관계없는 삶에 대한 전망을 말한다고 했다. Harold B. Kuhn, "secular theology," Tensions in Contemporary Theology. ed., Stanley N. Gundry, Alan F. Johnson (Chicago: Moody Press, 1976), 159. 이 외에도 '세속'과 '세속화'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체로 Heron은 세속화란 세속적 영역의 자율 의식이 신성한 것에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것, 영적인 것 또는 신성한 것을 거부하고 현 세계에 속한 일이나 사건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라 했다. Alasdair I. C. Heron, A Century of Protestant Theology(London : Lutterworth Press, 1980), 156. 웨스트(Charles West) 역시 "사상과 삶의 영역들이 종교적 지배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이상학적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세속화라고 주장했다. 반 퍼센과 웨스트의 견해는 1959년 9월 스위스의 '보세이 에큐메니칼 인스티튜트(Bossey Ecumenical Institute)'에서 모인 회합에서 제시된 것으로, 웨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콕스는 퍼센의 견해를 자신의 저서에서 인용했다. 하비 콕스, 『세속 도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8. 고가르텐(F. Gogarten)은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간주했던 제도, 이념, 경험을 순수한 인간의 사상과 행위의 산물로 변형시키는 것을 세속화로 보았다. 그런데 세속화는 세속주의(secularism)와는 구별되는데,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종교적인 지배와 형이상학적

제시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패러다임 마련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환 동인으로서의 성경적 원리들을 학문과 관련하여 살피게 될 것이며 그 패러다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기독교 학자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게 될 것이다.

II. 학문의 세속화

우리의 삶은 총체적으로 세속화되어 있다.⁵⁾ 그 총체적 세속화의 저변에는 학문적 세속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의 문화적 세속화에 대해 말하면서도 학문의 세속화에 대해서는 잘 거론하지 않는다. 이는 학문과 문화의 연속성을 간과한 처사이며 그 종교적 역학관계를 잘 의식하지 못한데 있다. 세속화된 학문의 허무주의적 결과를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통찰한 니체는 인간이 학문으로 그의 신들을 죽였다고 말했다.⁶⁾ 신앙은 내세에만 관련될 뿐 학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세속화된 학문은 인간의 마음깊이 그리고 그의 문화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날로 발달하는 지식 사회에서 문화적 다변화(differentiation)는 바람직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 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허무와 해체(disintegration)를 낳고 말 것이다.⁷⁾

세계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세속화이다. 반면, 세속주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다. 세속주의는 새로운 종교 역할을 하는 폐쇄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과학적 이론이나 정치적 제도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은 세속주의가 된다. 하비 콕스, 『세속 도시』, 31, 박봉량, 『신의 세속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175. 요컨대 세속화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율적 인간의 죄의 경향성의 총체이며 그 과정을 말한다.

5) Gary Scott Smith, The Seeds of Secularization(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173.

6)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2.

1. 역사적 개관

학문 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세속화의 요인을 역사적으로 살 펴본다면 그 사상적 근원은 고대 희랍 철학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계몽주의 이후⁷⁾ 가속화되어진다. 그런데 이 모든 사상적 흐름은 종교적 요인과 상관관계에 놓여 있음을 볼 때 학문의 세속화에 대한 왜곡과 무지에 있어 지난날의 기독교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1) 희랍사상: 질료와 형상 동인(motive)의 이원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피조세계의 왜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 이것은 진리 탐구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기초다. 이 사이에 긴장을 해소하려는 그 어떤 변증법적 사변도 다 비성경적인 것이다.⁸⁾ 그런데 우리는 희랍적 자연관을 지배하는 종교적 동인 내에 이러한 변증법적 전개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줄곧 ‘질료’ 및 ‘형상’ 이라고 불려온 동인이다. 형상과 질료, 이 두 가지의 상호 대립적인 동인들은 계속해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사상을 끌고 나갔다. 양자를 화해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그들의 궁극적 대립을 초월하는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7)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학문의 세속화를 극단적으로 밀고 간 현대 사회학이다. 구체적 실례로는 에밀 뒤르껼를 들수 있다.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2.

8)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It's history & Philosophy*(Chicago: Moody Press, 1983), 254.

9)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6.

이와 같은 대립은 종교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정한 종합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안은 한 동인을 다른 동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대 자연 철학은 질로 원리를 우월하게 보고 형상 원리를 경시했다. 그런가하면 또 플라톤의 이에 대한 형이상학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정반대였다. 이러한 형상 및 질로 동인간의 종교적 대립은 희랍의 인간관에도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세계의 기원과 인간에 대한 희랍의 관념은 이원론적이며 변증법적인데 이런 비기독교적인 학문의 토양이 그 이후 모든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중세사상: 종합과 분열 속의 이원론

중세에 희랍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 기독교 교리의 보다 깊은 뜻을 학술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신앙과 이성과의 조화를 꾀하여 체계적 학문을 수립하고자 했던 스콜라 철학이 바로 그것이다. 스콜라 철학은 한 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를 이성적 체계로 정리하려는 학문이었다. 희랍적인 질료와 형상은 스콜라 철학에서 ‘자연’과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 중세의 이와 같은 스콜라적인 ‘자연’ 및 ‘은혜’ 동인¹⁰⁾이 창조-타락-회복이라는 성경적 창조질서와 이원론적으로 화해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동인자체도 변증법적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후 모슬렘 철학자들에 의해 중세의 소위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소개되었고,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자연신학적인 중세 중

10) 카톨릭의 자연신학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영역 아래에 자연적 보편 은총을 놓고 않고 은혜와 따로 분리 된 독립적 자연의 영역을 이원론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국민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합철학(synthetic philosophy)으로 변모되어진 것이다.¹¹⁾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상체계에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과 ‘은총’의 이원론을 택하였다. 이 이론은 모든 인간이 이성의 빛에 의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적 이성의 빛이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이성이나 중생하지 못한 자의 이성이나 동일하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진리 발견에 있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¹²⁾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는 은총의 영역을 설정하고 인간 지식을 위해서는 자연의 영역을 설정했다. 요컨대,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은총의 영역에서 지식의 도구가 되고, 인간의 이성도 자연의 영역에서 지식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¹³⁾ 이와 같은 이론적 구조 속에서는 기독교 학문이나 비기독교 학문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이처럼 토마스주의는 자연과 은혜 동인을 종합하려고 노력했지만 14세기와 15세기의 유명론은 이러한 토마스적 종합을 분열시켰고 다시금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환원시켰다. 이런 관점에서는 자연과 은혜 간에 어떠한 접촉점도 없었다. 자연과 은혜라는 종합적 개념이 분열되자마자 이 두 종교적 동인들이 다시금 서로 근원적인 대립을 보이게 되었고 학문, 특히 자연과학과 교회 교리는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학문의 세속화는 점점 가속화 되어진다.¹⁴⁾

11) 김성수, “성경과 학문,” 『기독교사상연구』(1992.4):101.

12)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13.

13)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성수, “성경과 학문”, 101.

3) 종교개혁 시대: 학문적 개혁의 불발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학적이고 교회적인 운동만은 아니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할 성경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통합적이고도 근본적인 성경 중심 동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도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종교개혁은 이 운동에 찬동하는 국가들의 대학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교개혁은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¹⁵⁾

멜랑흐톤의 교육 개혁도 철저하게 성경적인 정신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사람의 왼손이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루터의 교리에 편승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인본주의적인 스콜라 철학을 낳게 되었다. 17세기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보에티우스는 데카르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가장 앞장서서 옹호했다. 개혁주의적 고등교육을 마비시킨 암적 요소는 프로테스탄트 학문의 혼합주의였다. 칼빈의 개혁주의적 정신은 '자연 및 은혜'라는 스콜라적인 타협적 사고방식에 의해 묻히고 말았던 것이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유산인 이러한 변증법적 동인이 학문에 대한 개혁의 힘을 약화시켰고 학문의 세속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 버렸던 것이다.¹⁶⁾ 그리고 그 후유증이 이어서 나타나는데 로마 카톨릭의 자연 신론에서 보는 바 보편 은총이 그리스도의 통치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14)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13.

15) 존 스토틀는 그의 에베소서 강해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고유의 영역에서 사역해야 할 성직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50%의 성공이라고 말 한 적이 있다.

16)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16.

것처럼 생각하는 이원론은 후에 신앙과 학문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계몽주의 시대의 인본주의적 세속화를 준비해주는 결과를 낳았다.¹⁷⁾ 학문에 대한 개혁의 불발은 “신앙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지혜를 위해서는 아테네로 가야 한다”는 이원론적 금언을 다시금 채택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4) 계몽주의 시대: 신앙과 학문의 결별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한편으로는 신앙적 정통을 가리기 위한 교리주의에 사로 잡혀 있었다. 자연히 진리에 대한 정오와 진위는 매사에 교회 신조의 검증을 받아야 했는데 이와 같은 진리의 시비 판정은 다분히 신앙주의(Biblicism)적이고 경직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때에 불어온 한 사상적 바람이 계몽주의이다. 계몽주의의 등장은 그 이전까지 교회 중심¹⁸⁾으로 진행되어오던 학문적 방법론에 있어 거의 획기적 영향을 끼쳤다.¹⁹⁾ 이 시대의 사상가들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적 진술을 이미 수용된 체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계몽주의 시대의 지식인들은 종교적 신념들에 대해서는 판별 가능한 것에 한하고 도덕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들로 제한하려 했다. 계몽주의는 르네상스라는 기초 위에서 중세적 사고와는 궁극적으로 다른 근본적인 사상의 변화를 초래했다.²⁰⁾ 계몽주의 이전 시대에는 안셀무스(Anselm, 1033~1109)의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명제는 지식 추구에 있어 지배적

17)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15.

18) 물론 교회 중심적이었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당시의 학문은 다분히 신앙주의적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한다.

19) cf.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th Century Theology*(Illinois: Inter Varsity Press, 1992), 18.

20) Stuart Hampshire, *The Age of Reason 17th Century Philosophers*(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1956), 11.

사상이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이 명제는 바뀌어 “나는 내가 이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다.²¹⁾ 이성을 중시하는 이 시대가 기독교 신학의 기초와 방향을 모두 뒤엎어 놓아버렸기 때문에 계몽주의 이후에는 그 이전의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였다.²²⁾

5) 세속화 극복 시도

계몽주의 이후 급격히 세속화 된 종교적 위기 속에 어떤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새로운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종류의 지성들은 계몽주의의 기본 취지를 용인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²³⁾ 그러한 유의 첫 시도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 의해 이루어졌다. 칸트는 계몽주의를 극복하고 종교의 초점을 ‘순수이성’의 영역(오관에 기초한 인식의 영역)에서 ‘실천이성’의 영역(도덕적으로 조건지어진 존재로서의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인식의 영역)으로 옮겨감으로써 신앙과 이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 했다.²⁴⁾

그러나 결국 칸트도 세계를 물자체계와 현실계로 이원화함으로 불가지론으로 흐르고 말았다.²⁵⁾

계몽주의로 인한 기독교적 지성 위기에 대한 제 2의 대안은 또 한 명

21)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17.

22) Ibid., 17.

23)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계몽주의 이후 19세기 사상을 형성한 사람들이 있는데 칸트, 헤겔, 그리고 술라이에르마흐가 그들이다. 그런데 이 세 사상가들의 특징은 모두 인간의 삶에서 종교적 부분을 하나의 특별한 영역으로 분리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24) cf. 콜린 브라운, 『철학과 기독교 신앙』, 문석호 역(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9), 144.

25) cf.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31.

의 위대한 철학자 헤겔(G. W. F. Hegel, 1770~1831)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이성시대의 경험론자들이 옹호했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강조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오관적 경험이 지식을 위한 유일한 기초라든가 또는 오관적 경험으로부터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지식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등의 주장은 부인했다. 그는 실재란 활동적이며 발전하고 있다고 가르쳤고²⁶⁾ 진리를 과정으로 이해했다.²⁷⁾ 비록 그의 사상이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불변의 보편적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칸트와 헤겔의 제안과 달리 슈라이어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는 기독교 진리의 초월성이 위협을 받는 이성 시대에 신학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감정'에 주목한 것이다. 그의 대안은 그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특별한 경험, 곧 직관적 삶을 종교의 중심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이와 같은 발상이 기독교 신학에 끼친 영향력은 뉴턴이 물리학에, 프로이드가 심리학에, 그리고 다윈이 생물학에 끼친 것과 같다고 하겠다.²⁸⁾ 그는 '교회의 황태자'로 불려졌고, 또 몇 안 되는 기독교 사상의 거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²⁹⁾ 그리고 존 칼빈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³⁰⁾ 현대 종교와 신학 사

26) G. W. F. Hegel, *The Philosophy of Right and Law In The Philosophy of Hegel*, Edited by Carl J. Friedrich(New York: Random House, 1953), preface.

27) G. W.F. Hegel, *The Science of Loci*(The first part of the Encyclopedia of the Philosophical Science), trans. William Wallace(Oxford: Claredon, 1982), 81.

28) Ibid., 39.

29) Brian Gerrish, *A Prince of the Church : Schleiermacher and the Beginnings of Modern Theology*(Philadelphia: Fortress, 1984), 20.

상의 창시자로 불려진다.³⁰⁾ 하지만 기독교적 지식 산출에 있어 그의 학문적 방법론은 위기에 몰린 전통적 신앙주의와 도전적인 계몽주의적 객관주의를 피해 감정으로 도피한 주관주의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세 사상가들의 특징은 모두 인간의 삶에서 종교적 부분을 하나의 특별한 영역으로 분리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신학적 작업은 모두 바람직한 기독교 학문의 신학적 기초가 될 수 없다.

2. 세속적 패러다임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 일반의 근저를 이루는 희랍적 사상들 속에는 기독교적 전제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세속적 패러다임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계몽주의의 출현으로 인한 철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놀라운 혁명³²⁾은 이 세상을 전례 없는 변화와 발전으로 이끌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끼친 세속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부정적 의미의 휴머니즘³³⁾과 객관주의, 과학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학문적 작업에 있어 다분히 그 나름대로의 가치 지향적

30) Richard R. Niebuhr, Schleiermacher on Christ and Religion(New York: Scribner, n.d.), 6.

31) Robert R. Williams, Schleiermacher the Theologian: The Construction of the Doctrine of God (Philadelphia: Fortress, 1978), 1.

32)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18.

33) 결국 오늘날에는 하나는 유신론적이고 또 하나는 자연주의적인 두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휴머니즘이 나타나고 있다. 마리땡은(Hac-ques Maritain)은 이들 각각을 ‘신중심적인’(theocentric)휴머니즘, ‘인간중심적인’(anthropocentric)휴머니즘이라고 부르면서, 이 중 전자만이 참으로 통합적인 전체가 될 수 있고 참으로 휴머니즘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acques Maritain, Integral Humanism, trans. J. W. Evans(New York: Scribner’s, 1968).

관점을 가지고 있어 종교적 가치관과 충돌되는 것이다.

1) 휴머니즘

넓은 의미에서 보면 휴머니즘이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모든 관점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 원천과 지류들은 기독교적인 것, 희랍 철학적인 것 등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중세기까지는 서로 다른 전통들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그 이후 점차 기독교적 특성과 희랍적 특성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고 휴머니즘이 유신론적 가치를 결여하고 세속화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세속적 휴머니즘은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사상가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로 말미암은 것이다.³⁴⁾ 그는 이성의 제 1원리로 ‘회의(懷疑)’를 도입했다. 왜냐하면 이성이 모든 것을 의심할 때 그 회의의 주체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개인- 가 존재한다는 확실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언이 생기게 된 것이다. 데카르트의 이와 같은 사상은 그 이후 학문의 세속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때 이후로는 철학의 출발점이 신적인 계시가 아니라 사고하는 인간 주체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되었다.³⁵⁾ 신학에 있어서까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적인 이성의 소리를 강조하는 경향은 데카르트 이후에 나타난 현대의 신학적 특징이기도 하다.³⁶⁾

데카르트 외에도 볼테르 같은 이는 이신론을 추종하며 신이나 종교

34) Rene Descartes, Discourse on Method and Meditations, trans. Laurence J. Lafleur(Indianapolis: Bobbs-Merrill, 1960), vii.

35) Justo L. Gonzales,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Nashville: Abingdon, 1975), 3:297.

36)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19.

는 인간이 만들어 낸 신념에 불과하며 자연이 곧 신이라고 생각했다.³⁷⁾ 그리고 볼프는 독일의 대표적인 계몽주의자로서 그는 책을 낼 때마다 “...에 대한 이성적 생각”으로 제목을 붙일 정도로 이성주의자였다.³⁸⁾

대체로 현대적 휴머니즘의 사고는 ‘이성’을 포함한 다른 몇 가지 원리들로 그 특징을 이루는데 그것은 곧 ‘자연’, ‘자율’, ‘조화’ 등이다. Paul Tillich는 이 원리들에 입각한 휴머니즘적 사고방식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⁹⁾ 휴머니즘의 제 일 원리로서의 이성은 우주 전체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질서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가리킨다. 두 번째 원리인 ‘자연’은 ‘물질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고 그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으로서 휴머니즘은 우주를 내재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질서 정연한 체계라고 간주했다. ‘이성’과 ‘자연’은 휴머니즘적 사고의 세 번째 원리인 ‘자율’(autonomy)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제는 더 이상 신적인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⁴⁰⁾ 이제는 인간 개인이 그 권위에 대한 주장들을 시험해 보려 들기 때문이다.⁴¹⁾ 넷째 원리인 ‘조화’는 이성의 시대가 그 원리로 간주한 우주의 합리성과 질서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우주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질서가 특징적으로 내재되

37) C. Brown, *Philosophy and the Christian Faith*(Tyndale, 1969), 86.

38) 김해연, 『지성과 신앙의 대화』(서울: 성지출판사, 1998), 88.

39) Paul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8), 320~41를 보라.

40) 세속적 휴머니즘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며 가치를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제한시킨다. 그리고 사람이 그 실존과 운명에 있어 중심이 되는 자연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하나님을 모든 존재와 가치의 궁극적 원천으로 보는 초자연적 세계관을 거부한다. Paul Kurtz, ed., *Moral Problems in Contemporary Society: Essays on Humanistic Ethics*(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1969), 3.

41)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1.

어 있어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각 개인이나 물질의 이기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주 전체가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휴머니즘적 사조는 학문의 세계에서 일체의 초자연적 사실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휴머니즘적 가치관을 통해서는 기독교적 가치 창출은 기대하기 힘들다.

2) 객관주의

객관주의는 계몽주의 이후 근대와 현대의 주도적 지식 이념으로서⁴³⁾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객관주의는 정확하게 형식화된 지식을 선호한다. 확정과 불확정의 경계선에 있는 지식은 확정할 수 있는 지식으로 환원하고 환원이 되지 않는 지식은 배제한다. 측정 가능하고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 가능한 것 외에, 부정하거나 모호한 것은 철저히 불신한다. 둘째, 객관주의는 환원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수학과 물리학이 학문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모든 지식은 끝내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오직 물리적 현실만이 참된 현실로 인정되고 환원할 수 없는 것은 참된 현실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객관주의는 형식화된 지식의 선호, 환원주의, 실증주의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직 '객관성'만을 유일한 가치로 수용하는데 이것을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간

42) 강영안, “통일과학 이념과 인문학,” 『한국철학회』 제 51집 (1997년 여름): 343-374. 강영안, “근대 지식 이념과 인문학,” 『한국철학회』 제 57집(1998년 겨울): 95-127. 1960년 대 이후에는 현상학과 해석학적 방법론, 또는 맑스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 이론이 인문 사회과학에 도입되면서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 방법을 지양하고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했지만 현대 학문은 아직도 전반적으로 객관주의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강영안, “기독교수는 누구인가,” 천안대학교에서 열린 2001학년도 천안대 교직원 연수회, 2001년 2월 21일, 교수용 강의안,

과 관련된 현상을 탐구하는 인문, 사회과학, 그리고 심지어 신학적 작업에 있어서까지 적용하여 검증과 실증을 요구하고 있다.⁴³⁾

상술한 바와 같은 학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객관주의는 자연히 학문적 작업에 있어 성경에 대해 배척적이며 신앙과 학문을 분리한다. 성경은 단지 신앙적 자료이지 학문적 자료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자에게 신앙적 영역은 전혀 없으며 성경의 사용은 신앙적인 것, 학문적이지 아닌 것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이와 같은 이원론적 입장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구분한 희랍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⁴⁵⁾

그러나 이와 같은 객관주의에 대해 폴라니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물음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첫째, 이론 구성과 수용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가? 둘째, 형식화된 지식만이 과학적 지식일 수 있는가? 셋째, 과학적 지식은 가치 평가를 배제하는가? 하는 것이다. 폴라니의 진술은 새로운 이론을 수용할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때는 발견과 검증이 그렇게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1920년대만 하더라도 상대성 이론은 실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는 예측을 그렇게 많이 내놓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상대성 이론이 참된 것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까지 관찰을 통해 알고 있던 여러 현상을 단 하나의 합리적 원리를 통해 추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특별한 검증과 실험을 거치지 않고 직관에 의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다.⁴⁶⁾ 폴라니는 새로운 이론이 수용되는 데는 관찰과 실험보다는 개

43) 강영안, “기독교수는 누구인가,” 6.

44) 김성수, “성경과 학문”, 100.

45)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10~13; 김성수, “성경과 학문”, 101.

별 이론이나 설명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⁴⁷⁾ 객관주의의 맹점은 학문적 원리만 있고 학자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대상을 느끼고, 느낀 바를 해석하고, 지식으로 재생산하는 학자가 없다. 따라서 객관주의 학문 방법론을 따른 신앙과 학문의 분리는 기독교 학문을 불가능하게 한다.

3) 과학주의

계몽주의 이후 학문세계에 불어 닥친 또 하나의 큰 바람은 중세의 세계관과는 급진적인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 과학 분야에서의 혁명인데 이것은 특히 우주관에 관한 것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발단이 된 것이다.⁴⁸⁾ 물론 이러한 발견은 진리의 발견이며 그 공헌은 경이로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물질세계 자체를 이해하는 관점과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접근 방식에서 일어난 변화의 문제이다. 이성 시대에 와서는 일찍이 사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던 목적인(final causes)에 대한 강조가 퇴색하고, 갈릴레오(1564~1642)가 개척한 바 과학적 작업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수량적으로 보는 견해가 부상하게 되었다. 정확한 계량 방법과 수학을 이성의 가장 순수한 방법으로 수용한 것이 자연 현상들을 연구하는 적절한 접근 방법의 도구가 되었다. 수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양상들만을 현실적인 것으로 취급했다.⁴⁹⁾

과학주의자들은 자연 과학 뿐 아니라 정치학, 윤리학, 형이상학, 심

46) Albert Einstein, *Philosopher-Scientist*(Evanston, 1949), 53.

47) Richard Allen, *Polanyi*(London: The Claridge Press, 1990), 14.

48)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19.

49) Hampshire, *Age of Reason*, 12~13; Isaiah Berlin, *The Age of Enlightenment*(New York: Mentor, 1956), 16~17.

지어 신학도 이 과학적 표준 규정에 맞춰 보고자 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가 자연 과학의 분파로 취급된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의 이러한 혁명은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의 업적을 통하여 그 절정에 다다랐다.⁵⁰⁾ 뉴턴은 우주를 소수의 근본 법칙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 했다. 게다가 뉴턴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단순히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과학이 더 고양시켰다고 믿었다. 그의 임무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느냐는 것이었다. 19세기의 역사가자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는 그의 업적과 그것이 미친 영향을 재미있는 이행 시에 담았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들이 밤 속에 숨어 있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났다.”⁵¹⁾

새로운 과학적 사고방식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 면에서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점차적으로 신의 존재와 도덕법은 만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성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고 믿는 ‘자연종교’와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내용으로 하는 ‘계시종교’를 구분했다.⁵²⁾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후자는 점점 공격을 받게 되었고 전자는 진정한 종교의 위치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과학주의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세속적 휴머니즘(secular

50)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

51) John Herman Randall, Jr., 서론, in Isaac Newton, Newton's Philosophy of Nature, ed. H. S. Thayer(New York: Hafner, 1953), xiv.

52) Ibid., 29.

humanism)’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과학주의는 과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제공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이에 따르면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실재 즉 자연밖에 없으며, 과학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 갖는 지식에 독점적인 권한을 지닌다는 것이다.⁵³⁾ 그리고 종교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공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이비 지식, 다시 말해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대한 거짓된 인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약간 다른 형태의 과학주의이긴 하지만 여전히 종교를 과학의 범주 안에 넣어서 생각하는 과학 제국주의적 사고도 기독교 학문과 반하는 이 시대의 세속적 학문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과학주의가 무신론적인 반면, 과학 제국주의는 신적인 어떤 것의 존재를 인정한다.⁵⁴⁾ 하지만 신적 존재에 대한 지식은 종교적 계시가 아닌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폴 데이비스(Paul Davies)는 새로운 물리학 덕분에 과학은 실제로 예전까지 종교적인 것에 속했던 물음들을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⁵⁵⁾ 프랭크 티

53) Langdon Gilkey, *Nature, Reality, and the Sacred: The Nexus of Science and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1993), p. 14. 20세기 초 영국의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버트란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는 것을 인류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테드 피터스, 『과학과 종교』(서울:동원, 2002), 33; 20세기 중반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Fred Hoyle)은 현대 과학으로 인해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종교들이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적 행동이 도피주의이며, 우주의 신비로부터 공상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red Hoyle, *The Nature of the Universe* (New York: Mentor, 1950), 125; 이들에 이어서 자크 모노(Jacques Monod)는 “오직 객관적 지식만이 진리의 진정한 원천”이며, 이제는 현대 과학이 과거의 종교적 설명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곤 했다. Jacques Monod, *Chance and Necessity* (New York: Alfred A. Knopf, 1971), 169~72.47) Richard Allen, Polanyi(London: The Claridge Press, 1990), 14.

54) 테드 피터스, 34.

플러(Frank Tipler)는 빅뱅과 열역학을 결합한 양자 이론이 미래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기독교보다 더 뛰어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학이 물리학의 한 분야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⁵⁶⁾

III. 성경과 학문

전술한 바와 같은 세속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 산출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적 작업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기독교학자로서의 우리의 패러다임에 변환을 가져 오게 하는 동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하지만 성경을 학문과 연계함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유념할 것들이 있다.

1. 성경과 학문의 부적절한 연결

1) 성경구절의 문자적 적용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⁵⁷⁾ 그러나 이 말이 성경이 역사 참고서이며 과학 참고서라는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문자적, 자료적 해석의 한계를 무시하고 성경 구절의 왜곡되고 무분별

55) Paul Davies, God and the New Physics (New York: Doubleday, 1994), ix, 10, 17, 247.

56) Frank Tipler, The Physics of Immortality(New York: Doubleday, 1994), ix, 10, 17, 247.

57) Norman Geisler and William E. Nix,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Bible(Chicago: Moody Press, 1968), 57; 제임스 바 『근본주의 신학』, 장일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48.

한 학문적 적용들이 도리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17세기 초엽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갈릴레오(Galileo)의 태양 중심설을 이단적인 것으로 정죄⁵⁸⁾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명백하게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13절과 같은 본문에서 소위 가르쳐지고 있다고 보는 지구 중심설의 세계관과 모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잘못된 성경 적용은 곧 오류임이 드러났다. 무디는 전도의 도구로서 소위 라디오와 같은 새로운 발명품에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디는 성경이 명백하게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⁵⁹⁾

버나드 램은 성경의 몇몇 특수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과 학문을 잘못된 관계 지우고 있는 몇 가지 예견의 실례들을 보여 주고 있다.⁶⁰⁾ 창세기 1:2-현대의 물질파동설⁶¹⁾, 욥기 38:35-무선전신⁶²⁾, 히브리서 11:3-원자이론⁶³⁾, 요엘 서2:3~4-자동차⁶⁴⁾, 이사야서 31:5-비행기⁶⁵⁾, 전도서

58) cf. 니콜라스 월트스토프, 『종교의 한계 내에서의 이성』(서울: 성광문화사, 1991), 17~18; Giorgio de Santillana, *The Crime of Galileo*(Chicago, 1955).

59) Michael Williams and Goheen, *Perspective in Biblical Theology: A Syllabus of Readings for Theology 101* (Sioux Center, IA: Dordt College, 1991), 10.

60) Bernard Ramm,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56), 125~136.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48.

61) cf. O. E. Sanden, *Does Science Support Scripture?*(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51), 39~40.

62) H. Rimmer, *The Harmony of science and Scripture*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36), 155.

63) O. E. Sanden, 122, 137. 림머(Rimmer)에 의하면, “원자이론(atomic theory)은 분명히 사도바울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원자이론에 대한 진술은 히11:3에서 찾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H. Rimmer, 91~92.

64) W. F. Beirnes, “Forecast of Advent,” *Dawn*, (January 1951): 31~32.

65) Ibid.

10:20-라디오⁶⁶⁾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예들은 무리하게 성경 구절을 학문적으로 적용한 실례들이다.⁶⁷⁾

그런데 신앙주의자들은 만약 누가 “고대에 살았던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현대의 과학적 사실들을 알고 예견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 물론 같은 이는 성경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신적 영감론에 의지한다. 즉, 성경을 기록한 고대의 저자들이 신적 영감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옛날 그와 같은 과학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⁶⁸⁾ 림머(H. Rimmer)같은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과학과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연구해 보면 현대과 학에 대한 무수한 예견들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⁶⁹⁾

하지만 우리는 신앙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구절이 언제나 학문의 자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는 보지 않는다. 물론 어떤 경우에 학자들은 때로 성경구절 그 자체에서 놀라운 학문적 자료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이고 해석학적 작업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성경구절의 향시적이고, 문자적인 적용은 반 학문적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접근은 다름 아닌 성경 구절 상호 간의 문자적 적용에서 오는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성경에 대한 문자적 접근 또는 “성경구절증명주의”의 접근방법은 어떤 점에서는 성경과 학문을 적극적으로 관계지으려고 한다는 동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성경이 현대의 어떤 과학적인 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이 때 그들이 빠지게 되는

66) Ibid.

67) cf. 김성수, “성경과 학문”, 『기독교사상연구』(1992.4): 106.

68) W. F. Beirnes, 31~32.

69) H. Rimmer, 87.

유혹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성경의 영감에 대한 호소가 성경의 본문을 20세기의 과학적 관점에서 본문을 읽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 자체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⁷⁰⁾

2) 성경구절의 과학적 적용

그러면 성경이 사용하는 현상학적인 언어는 성경 기록 당시의 과학적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고 형태는 모두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저자들이 당대의 세계관, 사고형태 그리고 고대의 “과학적” 개념까지도 사용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하늘을 궁창(창1:6~8)으로, 우주를 3층(출20: 4)으로 본 고대인들의 우주론을 반영해 보여 주고 있는 것 등이다.⁷¹⁾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그 메시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사고형태, 범주들을 반드시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언어란 결코 단조롭고 비신축적인 방법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때때로 견고한 궁창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다른 때는 펼치는 커튼(cf. 시 104:2, 사 40:22), 또한 말아 올릴 수 있는 두루마리(cf. 사 34:4)로 묘사되기도 한다. 하늘의 창문이 한두 번 언급되고 있지만, 많은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비가 공중에 있는 구름으로부터

70) Bernard Ramm,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136.

71) Sidney Greidanus, “The Use of the Bible in Christian Scholarship,” Christian Scholar’s Review, Vol. XI, No. 2, 1982, 141.

온다고 말하고 있다(cf. 사 5:4, 욥 36:28, 시 77:17). 땅이 어떤 때에는 원형으로 언급되고 있다(cf. 사 40:22). 하지만 구석과 끝을 가진 것으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cf. 사 11:12, 신 33:17, 욥 37:3, 시 19:6 등). 태양과 달과 별들이 궁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지만(cf. 사 14:12), 하늘 주위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 것으로 더 많이 묘사되고 있으며(cf. 시 19:5~6), 달은 명랑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cf. 시 31:26).⁷²⁾

이와 같이 용어가 갖고 있는 유동적 성격과 그 사용 범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고대의 “과학적” 개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단순하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대체로 성경은 현상학적 언어로 기록되었다.⁷³⁾ 성경은 결코 천문학이나 지리학, 화학 등의 이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⁷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과 학문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갈등을 찾아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성경과 창조세계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 창조세계에 대한 해석의 갈등일 뿐이다.

2. 성경과 학문의 올바른 관계

1) 학문의 근거와 규범으로서의 성경

우리는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

72) James Orr, “Worl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60) 5: 3106.

73) H. Evan Runner, The Relation of the Bible to Learning(Toronto: Wedge, 1970), 118~119.

74) Bernard Ramm,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0), 210.

익(딤후 3:16)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 되었다고 믿는다. 유기적으로 영감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기록에 있어 성령의 간섭하심 가운데 성경 기록자의 교육적 배경, 환경, 기질, 그가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기록내용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학문적 작업에 있어 성경 구절 그 자체를 자료로 삼는 것은 거부하지만 성경과 성령의 조명이 학자의 학문적 작업에 빛으로 작용함을 믿으며(시119:102), 성경 구절주의는 배격 하지만 진리인식의 근거로서의 성경, 그 해석의 학문에서의 적용은 진리 탐구에 있어 준거 기준이 됨을 믿는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각종 오류에 기울어져 있으며 진리를 날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을 필요가 있다.⁷⁵⁾ 그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그 실천을 위한 규범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신앙이나 실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⁷⁶⁾ 우리는 성경을 진리를 표현함에 있어 유일한 표준이며 규범으로 보지만 그러나 보조적 자료들로서의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무시하지 않는다.⁷⁷⁾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과 객관의 상응함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다.⁷⁸⁾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지성 작용을 감안하여 인간에게 주어

75) 김종흠 외, 『기독교 강요 상』(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31.

76) 장두만,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서울: 요단출판사, 1993), 117.

77) A Kuyper, Het Werk Van den Heiligen Geest(Amsterdam, 1838), 405-415; Bavink, Gereformeerde Dogmatiek I, (Kampen, 1906), 41-103. Thornwell, Collected Writings, Richmond, Va., 1871, 39-52; Girardeau, Discussion of Theological Questions 『Adoption』(Richmond Va., 1905), 45.

78) 장두만,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서울: 요단출판사, 1993), 25.

진 것이다.⁷⁹⁾ 그러나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일반계시로부터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은 죄로 인하여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 비추어 볼 때만 교정되고 해석된다.⁸⁰⁾

2) 학문과 본질적 관계(intrinsic relationship)로서의 성경

성경과 학문의 올바른 관계는 이원론적(dualistic)이거나, 성경이 학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관계(biblicism)가 아니라 성경 안에 지식의 열쇠가 되는 중심 동인(central motive)이 있으며 그것이 통합적(integral)이고도 근본적(radical)인 성격⁸¹⁾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과 학문은 본질적 관계(intrinsic relationship)라 본다.⁸²⁾

입장은 과학적으로 중립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상과,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상 모두를 거절하고 성경이 모든 학문에 기초(foundation)가 된다는 사상을 강조한다.⁸³⁾

우리는 성경의 빛 아래서 학문적 사상의 아주 근본적인 바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원리적인 방법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성경이 원리적이며 전과학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있지

79)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서울: CUP, 1998), 134~45, 2003.3.17.

80) 루이스 벌콕 『조직신학 상』, 67.

81)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4.

82) 성경과 학문의 이러한 본질적 관계에 대해서 칼빈대학(Calvin College)의 교육과정 연구위원회(Curriculum Study Community)의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인 학자에게 있어서 탐구의 올바른 대상은 자신이 직면하는 실재이다. 학문이란 성경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 물리학이나 화학, 수학, 문헌비평에 관한 교과서가 아니며 심지어는 철학 책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사고에 어떤 틀과 구조를 제공해 준다... 성경은 실재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 성경적 관점에서 실재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다. Calvin College Curriculum Study Community,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Grand Rapids, Michigan: Calvin College and Eerdmans, 1970), 57.

83) 김성수 “성경과 학문,” 114.

만⁸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창조세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 저야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제를 들어내 보여주고 있다. 학자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제 국면을 연구할 때 성경에 나타난 이 근본적인 전제와 원리가 그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다.

IV. 기독교적 패러다임

1. 기독교적 패러다임의 필요성

학문일반이 성경의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학문적 작업에 기독교적 패러다임이 요구되어 진다는 말이다. 적어도 기독교 대학에서 행하고 산출하는 학문적 작업과 결과들은 기독교적 가치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반은총 가운데 허용되어진 학문의 일반적 원리와 공식을 무효화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들은 객관적으로 더 발전되고 진전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적 패러다임 도입은 단지 학문 일반의 원리에 나타나는 가치적 한계와 그 방향성과 관련 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학문에 있어 그 가치적 측면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것은 학문적 접근이 객관적이며 상향적(bottom up) 방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이며 하향적(top down)으로도 접근 가능하

84) 여기서 전과학적(pre-scientific)이라는 의미는 인간 역사발전의 단계에 있어서 초기단계, 그래서 좀 열등한 단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초적인(foundational for), 또는 “과학과는 다른 종류의”(other than)라는 의미이다.

며 쿤의 말대로 과학과 비과학을 비교하고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이론은 비중립적이고 비객관적인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폴라니(M. Polanyi)의 말대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활동은 우리의 지성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 참여 행위이기 때문이다.⁸⁵⁾ 따라서 성경을 진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로서는 학문적 작업에 있어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학문세계에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이 문제와 변칙 사례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패러다임 변환인데 쿤(Kuhn)은 이것을 종교적 개종⁸⁶⁾과 같은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패러다임 변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적 패러다임이 인간을 통합적인 인격체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의 소리가 높다.⁸⁷⁾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어 모더니즘의 자

85) 그러나 이것이 파울 피어아벤트(P. Feyerabend)처럼 과학 부정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쿤(Kuhn)과 헨슨(Hanson), 그리고 폴라니(Polanyi)의 학문 이론은 과학 지식의 절대주의를 배격하고 상대주의의 출현을 예고했는데, 이런 학문적 상대주의를 체계화하여 거의 ‘반(反)과학주의’ 내지 과학에 대한 인간적인 부정으로 나아가는 이는 파울 피어아벤트이다. 그래서 그는 ‘계몽’을 가지고 과학과 미신을 구분하는 일방적 논리를 단연코 거부한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도 좋다(anything goes)’라는 태도라고 한다. P. Feyerabend, “Against Method,” 296. 우리는 객관주의의 맹점을 비판함으로 상대주의로 나갈 수는 없다. 절대 보편적 진리는 엄연히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껏 계몽주의 이래 객관주의 지식의 틀 안에 갇혀 진행되어 오던 우리의 학문적 패러다임의 변환을 시도해야 한다.

86)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19.

87)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종 신앙-문화 공동체 교육 패러다임(community of faith-enculturation paradigm)이 거론되곤 한다. T.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san Francisco : Harper and Raw, 1980); C. E. Nelson, *Where, Faith Begins*(Atlanta: John Knox Press, 1967); J. H. Westerhof, *Will Our Children Have Faith?*(Minneapolis, Min : Seabury Press, 1976) 등은 신앙 공동체의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한 논문이다.

체위기로 인해 포스트모더니즘이 대두되고 있으나 기독교는 아직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없으며 문화적 적합성(a cultural relevance)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가 만약 이와 같은 패러다임 변환의 시대에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학문과 지식의 전당을 회의론, 불가지론, 무신론 등에 의하여 지배당하게 내 버려 둔다면 이는 전적으로 기독 학자의 책임이다. 변화하는 지식의 범례의 도전에 성경적으로 적절히 응답하는 것이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기독 학자의 할 일이다. 아울러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종사하는 모든 학자들의 신앙적 개종과 더불어 패러다임 변환을 통한 '학문적 개종'도 필요하다.

2. 기독교적 패러다임의 중추: 기독학자

1) 기독학자와 정체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와 그 법칙의 실재에 관한 학문적 작업의 참고점⁸⁸⁾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피조 세계와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사람이다(창1:26)참고점으로서의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경과 관련하여 살펴보았고 피조세계의 객관적 측면 역시 아울러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피조세계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봄으로써 산출되는 기독교 학문의 주체자인 기독학자에 관하여 살펴봐야 한다.

88) 그레이다너스(Sidney Greidanus)는 학문에 대해서 성경이 제공하는 이 관점(perspective)에 대해 기본적으로 성경적 틀을 이야기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3개의 중추적인 참고점으로 창조주이시며 법칙 부여자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와 그 상호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Sidney Greidanus, 145.

대학의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그 구성원인 교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 대학의 세속화에는 미국 대학 교수 협의회(AAUP,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 협의회에서 말하는 대학 교수의 기능은 인간 지식의 총량을 늘이는 것으로 여기에 종교적 진리는 배제된다.⁸⁹⁾ 그렇다면 기독교학문에 걸 맞는 기독교 학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기독교인이면서 학자인 사람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정의야말로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며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기독교학자라 할 것인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행위, 결과, 무엇과의 관계를 통해 그 존재를 규정해 보

89) 1915년에 결성된 이 협회는 대학 교수들의 모임으로서 존 듀이(John Dewey)가 초대 회장이었다. George M. Marsden,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306. 이 협의회는 대학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교육 이상을 제시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진리란 “과학적 관찰자들의 의견 수렴으로서 객관적 관찰자들이 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근대 계몽주의적 이상이 20세기의 진보적 대학 교수들에 의해 구현된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목표를 위하여 저들은 기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오직 이성에만 따르는 학문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장동민, “Veritas et Libertas—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이념과 세속화 문제—,” 『백석저널』 창간호 (2002. 봄): 80. 장동민, 81. 재인용. 이러한 대학의 세속화의 원인을 염려하고 있는 서구의 선진 기독교 대학의 경우 교수채용 시에 한결같이 교수의 전공영역에 대한 수월성과 아울러 연구 활동을 얼마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냐 하는 능력과 의지를 먼저 보고 있다. 김성수, “도르트 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의 신학과 세계관,” 통합연구 16권(1992.10): 92. 화란 자유 대학의 경우 1885년 당시 법학 교수였던 드 사보르닌 로만(A. F. Savornin Lohman)의 학문적 원리에 있어 개혁주의 원리 거부와 그로 인한 학교 당국과의 갈등, 그리고 결국 사표로 이어진 사건은 기독교 대학에서의 경우 학문적 패러다임 문제가 시비가 될 수 있음을 부여하는 한 실례가 된다. J. Roelink, *vijfenzeventig Jaar Vrije Universiteit*(Kampen: Kok, 1955), 106~117.

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즐겨 쓴 표현 가운데 “Agir sequitur esse” 라는 말이 있다. “행위는 존재에서 나온다”라고 통상 번역되는 명제이다. 나의 행위 양식(modus agendi)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나의 존재양식(modus essendi)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⁹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 안다는 주님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학자는 그의 학문적 열매를 기독교적으로 산출하는 자이다. 그의 학문적 열매를 가지고 주께 영광 돌려야 할 기독교 학문의 주체이다.

2) 기독교학과 통전성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학문적 작업을 해야 할 기독교 학자가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전적 관점이다.⁹¹⁾ 비록 죄로 인하여 왜곡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는 집중점을 창조하셨다.⁹²⁾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학문적으로는 세계관과 패러다임이 작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자는 통전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일원적인 존재(unitary being)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지성이 인간의 신앙 또는 그의 종교적 관점들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⁹³⁾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학문에 있어 희랍적 이원론과 스콜라적 분리를 거부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모든 피조세계의 의미를 집중시키셨다. 인간의 타락이 전 피조세계의 타락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0) 강영안, “기독교수는 누구인가?”, 2.

91)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5.

92) *Ibid.*, 5.

93) 김성수, “성경과 학문,” 118.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실재를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자체적인 사물(thing-in-itself)로 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실 때 피조세계를 인간과 분리시킨 적이 없다. 피조세계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영향아래 놓여 있고, 인간이 구속받음으로 피조계도 구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상에서 인간의 이러한 중심적 위치를 부인하는 어떠한 철학도 반성정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 의존적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성경)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지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있어 이원론적일 수 없으며 기독교 학문의 주체가 된다. 인간의 타락이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도 근본적이며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⁹⁴⁾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할 때 기독교 학자라면 성경적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아담의 지식 체계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자. 타락 전 아담의 지식 체계는 어떠했을까? 아담의 지식 체계는 하나님의 지식 체계의 반사여서 두 체계가 서로 상응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사물을 알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그도 따라서 생각하였다.⁹⁵⁾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어떻게 이름짓나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다(창2:19). 아담의 지식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식 체계를 전제하였다. 그리하여 아담의 지식 체계는 하나님 지식 체계의 재생산이었다. 아담

94)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5~6.

95) 서철원, “기독교대학과 성경적 학문관,” 『기독교대학』 합본호 제 8 권(71호~80호), 54.

이 지식을 획득한 방식은 지금처럼 추리적 방식이 아니라 지성의 최고 활동 단계라고 할 직관이었다. 믿음에 근거한 직관적 방식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는 아직 죄의 왜곡된 영향아래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아담의 의식으로 회복된 자이다. 물론 그 의식은 성경의 조명 아래 있을 때다.⁹⁶⁾ 거듭난 이성능은 개별 지식에 대한 산출적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성경에 대한 인식적 기능을 지닌다.⁹⁷⁾ 이런 점에서 기독교 학자에게 있어 패러다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성경적 패러다임은 기독교 학문을 가능케 하는 분명한 학문적 도구가 되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중추에 기독교 학자들이 서 있다.

V. 결론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삶의 각 영역에 학문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는 시대이다. 학문적 결과는 우리 사회의 문화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종전만 해도 학문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생소하고 사소한 대상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학문적 영향들은 상당 부분들이 세속적 사상들로서 인류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은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간 지성 회복을 꾀하는 기독교 학문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학문적 작업이 이루어

96) 서철원, “기독교대학과 성경적 학문관,” 68.

97) 전광식, “신학의 길과 신학함의 길,” 『기독교대학』합본호 제 8 권(71호~80호), 59, 54.

어저야 할 곳은 기독교 대학이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적 작업에 있어서도 주되심을 고백한다면 학문일반에 있어 기독교적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수월성(Christian Academic Excellence)을 통한 더 높은 학문적 가치가 산출되어야 한다. 기독교 대학과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존재 의의는 여기에 있다.

1. 한서

- 강영안. “기독교수는 누구인가.” 천안대학교 교직원 연수회, 2001년 2월 21일. 교수용 강의안, 6.
- _____.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 『통합연구』 16권 (1992.10) : 51~73.
- 김성수. “도르트 대학과 포체프스트롬대학의 신학과 세계관.” 『통합연구』 16권 (1992.10):75~94.
- _____. “성경과 학문.” 『기독교사상연구』(1992.4):95~124.
- 민경배. “한국 대학의 선교역사.” 이계준 편. 『기독교 대학과 학원선교』서울: 소망사, 1997.
- 박봉량. 『신의 세속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백석 장종현 박사 육영 25년 기념문집 간행위원회 편. 『진리와 자유』(서울: 기독교 연합신문사, 2001):64~66.
- 백석학술원. 『백석학원의 사명 선언문』서울: 백석학술원, 2002.
- 서철원. “기독교대학과 성경적 학문관.” 『기독교대학』합본호 제8권(71호~80호):66~75.
- 양승훈. 『예수님이 주인되시는 새로운 대학』대구:CUP, 1993.
-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서울:CUP, 1998.
- _____. “신학의 길과 신학함의 길.” 『기독교대학』합본호 - 제 8 권(71호~80호): 46~65.
- 장동민. “Veritas et Libertas-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이념과 세속화 문제-.” 『백석저널』창간호(2002. 봄) :71~101.
- 장두만.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서울: 요단출판사, 1993.

2. 역서

- 노르만 가이슬러. 『기독교 철학개론』위거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 데이비드 프레이저?토니캠폴로.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학』강대기 역.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7.
- 제임스 바. 『근본주의 신학』장일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아더 홈즈. 『기독교 대학의 이념』박진경 역. 대구: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 1992.
- 윌리엄 R. 캐논. 『중세교회사』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6.

- 조지 마스텐, 『기독교적 학문연구』 조호연 역. 서울: IVP, 2000.
- 콜린 브라운, 『철학과 기독교 신앙』 문석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9.
- 쿠르트 프리틀라인, 『서양철학사』 강영계 역. 서울: 서광사, 1988.
- 테드 피터스, 『과학과 종교』 김흡영외 역(서울:동연, 2002), 33.
- 하비 콕스, 『세속 도시』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0.
- 하인리히 오토, 『신학해제』 김광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3. 원서

- Allen, Richard Polanyi. London: The Claridge Press, 1990.
- Bloesch, Donald G. Holy Scriptur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4.
- Dooyeweerd, Herman.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trans. Robert D. Knudsen. Memphis, TN: Christian Studies Center, 1979.
- Grenz Stanley J. & Olson, Roger E. 20th Century Theology.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1992.
- Hodgson Peter C. and King, Robert H. ed.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8.
-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Marsden, George M. Fundamentalism and America Cultu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Polanyi, M. Personal Knowled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62.
- Smith, Gary Scott, The Seeds of Secularization.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Williams, Robert R. Schleiermacher the Theologian: The Construction of the Doctrine of God. Philadelphia: Fortress, 1978.
- Wolterstorff, Nicholas.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 Grand Rapids: Eerdmans, 1984.

주만성 교수는

고신대학교(B.A.), 고려신학 대학원(M.Div.), 리전트대학교 신학대학원(D.Min.),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Ph.D.cand.) 등에서 신학을 수학 했으며 고려 신학교(전라 분교), 개혁신학교(순천 분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쳤고, 현재는 천안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학교에도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개혁주의 조직신학 개론 이 있고, 논문으로는 “신학적 작업에 있어 몇 가지 권위적 요소” 등이 있으며, 주요 사역으로는 천안대학교에서 ‘기독교 지성’ 동아리를 통하여 기독교 학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